

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219-0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4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특집호
청렴윤리경영의 시작, CP

2025 April | Vol.148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5년 4월 1일(매월발행, 통권 148호, 비매품) 발행인: 유철환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신청: 044-200-7163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일반민원, 부패공익신고

☎ 110

부패공익신고 상담

☎ 1398



COVER STORY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는 기업이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안내서에는 부패 방지 및 법령 준수,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체계 및 활동인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와 관련 참고사항이 담겼다. 이에 우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특집호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 배경과 안내서 활용 방안, 윤리경영 지원 방향을 소개하고, 기업의 자율적 실천을 위한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01	특별 브리핑	04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hr/>		
02	ESG 속 청렴윤리경영	06
	ESG 동향과 부패방지	
<hr/>		
03	기업용 CP 소개	11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2024)	
<hr/>		
04	권익위 소식	15
<hr/>		
05	국내외 동향	19
<hr/>		
06	웹툰 윤리네컷	24
	감사 표현, 청렴 기준 안에서	
<hr/>		
07	행사소식	25
<hr/>		
08	독자 의견	27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

특별 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이번 특집호에서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특별 브리핑을 통해 국민권익위의 정책과 청렴윤리경영 지원책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 추진배경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Q1)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왜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확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우리나라 기업 경영의 무대가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법적·사회적 책임과 기업에 요구되는 윤리경영 수준이 보다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글로벌 반부패 규범이 강화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제재가 확대되면서 윤리경영은 이제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선진문명국이 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기업의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윤리경영 관련 최신 이슈와 사례를 소개하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매월 제작하여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7,900여 곳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기업이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활동을 말하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민간 기업에 컨설팅과 수준진단 등 CP운동을 지원하여 민간 기업이 윤리경영 규정 마련 등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부패 위험을 식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최근 발간된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는 어떤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에 기대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그간 공공기관 대상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시범 적용과 경제단체, 기업인,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12월 민간기업들을 위한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글로벌 반부패 규범과 다양한 규제 강화 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와 관련 참고사항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많은 기업들이 이미 윤리경영을 위한 전사적(全社的)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나,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어떠한 절차와 규정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할 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도 윤리적인 업체와 공급망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들도 윤리경영을 통해 기업 평판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를 참고하여 윤리경영 추진 현황을 스스로 보완·점검하고 부패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3) 향후 민간기업과의 협력 및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청렴윤리경영의 민간 확산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민간 기업들이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희망 기관을 모집하여, 규모와 업종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BFG리테일 등 민간기업 16곳을 대상으로 처음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에 나와있는 CP 체크리스트에 따라 기업들이 자가진단을 통해 윤리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영역별로 컨설팅을 지원하여 전문가 의견을 통해 기관별 개선·보완사항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규정과 사례를 설명하는 ‘윤리경영 실행매뉴얼’도 상반기 내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윤리경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국가청렴도(CP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점수와 순위(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상승할 때 1인당 GDP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청렴수준의 향상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의 상승은 정책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기업들의 지속적인 윤리경영 노력이 세계 10위권의 경제수준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제고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이 적극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ESG 동향과 부패방지

ESG 속
청렴윤리경영

(이 글을 읽는 데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ESG 규제 동향과 거버넌스

1. ESG 규제 동향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투자유치 전략에 직결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ESG 정보의 공시가 국제기구와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법제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기존의 자율적 사회적 책임 활동을 넘어서 보다 구조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2025년 현재, ESG 규제 환경은 단순한 '비재무 공시 요구'를 넘어 실질적인 리스크 통제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EU는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따라 기업의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제도화하고 있다. 2024년 호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S2)을 기반으로 공시 의무화를 확정했으며, 중국은 ISSB기준을 기반으로 자국 특수성을 반영한 공시 기준 CSDS를 확정했다. 일본도 2025년 3월 ISSB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확정했다. 한국 역시 2024년에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 G(거버넌스)와 반부패의 중요성

한편, ESG에서 'G(거버넌스)'는 반부패, 내부통제, 윤리경영, 이사회 책임 등 투명성과 관련된 핵심 요소를 포괄한다. 실제 기업의 신뢰도 및 법적 리스크 관리와 직결되는 만큼 중대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부패는 기업에 재무적 손실은 물론 평판 리스크를 수반하는 주요 위험요소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진이 부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은 물론 지속가능성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ESG 공시기준 내 반부패 공시요건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글로벌 공시표준인 EU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이에 따른 세부기준인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그리고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반으로 한 ISSB와 산업별 기준을 보완하는 SASB 체계를 중심으로 부패방지 공시 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공시체계는 부패방지 관련 공시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연결성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에도 매우 중요한 기준들이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EU의 CSRD는 EU가 2022년 12월 공식 채택한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으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ESG 정보를 법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CSRD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질, 신뢰성, 비교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CSRD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인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과 제3자 인증 체계를 함께 도입했으며, EU 역내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역외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2024년 1월부터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가 본격 발효되면서 기업은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하며, 재무성과 및 리스크 측면의 연결성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CSRD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도입된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는 2023년 8월 최종 확정되어 12개의 공시기준을 제공한다. 총 12개의 표준(2개 일반표준 ESRS1,2 + 10개 주제별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ESRS G1은 기업의 '사업수행(Business Conduct)'에 관한 기준으로 다음의 반부패 관련 공시를 요구한다. 단,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¹⁾ 평가 결과에 따라 보고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ESRS에서 지배구조 부문은 한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과 사회 부문에 비해 다소 비중이 적어보일 수 있으나, '반부패'라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 기업의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부패와 뇌물수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시 처리와 대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SRS G1 지표〉

ESRS G1	세부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G1-1 사업 행위 정책 및 기업 문화</p>	<p>기업 문화를 확립, 발전 및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와 사업행위와 관련된 정책을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강령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의 위반, 위반 우려사항에 대한 식별, 보고 및 조사 매커니즘 설명(보고 수용 여부) • 유엔 부패방지협약에 부합하는 부패방지 및 뇌물방지 정책 개요(없다면 구현 계획) • 내부고발자 보고와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회사의 안전장치(예: 직원 보호, 보복 금지) •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 및 명시 여부에 대한 설명(조치가 없는 경우 시행 계획) • 사건을 신속하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노력 • 동물 복지 정책(해당되는 경우) • 직원 교육 • 부패 및 뇌물 수수에 취약한 고위험 직무, 부서 식별과 정의, 비즈니스 행동 교육 전략
<p style="text-align: center;">G1-2 공급업체와의 관계 관리</p>	<p>공급업체와의 관계 관리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업체 관계 관리 관행 • 기업 조달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공개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지연 방지 정책

1) 이중 중대성: CSRD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기업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Inside-Out)과 사회·환경 이슈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Outside-In)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

<p>G1-3 부패 및 뇌물 수수 방지 및 탐지</p>	<p>부패 및 뇌물 수수 관련 혐의와 사건 예방, 감지, 조사 및 대응 시스템, 관련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 및 뇌물 수수를 예방, 탐지, 조사 및 대응 절차(없다면 절차 도입계획 공개) • 부패방지 및 뇌물방지 교육에 대한 설명(성격, 범위, 깊이, 다루는 위험 및 비율, 해당되는 경우, 행정, 감독 및 관리 기관의 구성원 관련 정보) • 세부적인 조사 절차 및 조사자와 독립성 • 감독 기관에 대한 결과 보고 프로세스 • 정책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설명
<p>G1-4 부패 또는 뇌물 수수 사건</p>	<p>보고 기간 동안 확인된 부패 또는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된 총 사건 건수 및 성격, 결과에 대한 공개 • 유죄 판결 건수 및 벌금 • 위반으로 해지 또는 갱신되지 않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과 관련된 사건 수 • 부패방지 절차 및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불충분한 사항 확인 여부 공개) • 직원이 관련 사건으로 해고 또는 징계받은 사건 수 • 선택적 공개: 총 사건 수, 징계 조치, 종료된 계약, 공개 법적 사건 및 결과
<p>G1-5 정치적 영향력과 로비 활동</p>	<p>중대성과 관련된 로비활동을 포함한 정치적 영향력 관련 활동 및 서약에 대한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비 활동 유형, 목적 및 기부금 총액 • 정치적 영향력 관련 활동 및 서약에 대한 정보 공개 • 감독 메커니즘 및 관리 감독기관 책임자 • 금전적 또는 현물 정치기부금 금지 • 로비 활동의 주요 주제 및 이에 대한 회사의 주요 입장
<p>G1-6 결제 관행</p>	<p>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결제 관행 정보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지급 기간 계산 시작일부터 청구서 지불까지 걸리는 평균 지불 기간 • 표준 조건에 맞춰 지불된 금액의 비율 • 보고기간 내 연체료에 대한 법적 소송(현재 미결) 수 • 충분한 맥락 제공을 위한 필요 보완 정보

출처: U4, ESG and anti-corruption (2024.2.26),

EFRAG, aft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ESRS G1 Business Conduct (2022.11)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위원회(SASB) 표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기준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한 일반 공시 기준인 'IFRS S1-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과 'IFRS S2-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IFRS S1은 ESG

이슈 중 외부로부터 기업이 받는 영향을 일컫는 단일 중대성(또는 재무 중대성, financial materiality)이 있는 사안만을 선별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SSB의 두 기준에서는 반부패·윤리경영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이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 통합되어 ISSB의 공시 기준인 IFRS S1/S2 기준을 산업별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일부 산업별 기준에서 반부패, 윤리경영 관련 지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기업이 산업별로 직면하는 ESG 이슈를 재무적 관점에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기준 체계이다. 총 77개의 산업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부패 관련 사항은 SASB의 산업별 기준 중 금융, 금속 및 채광, 해상운송, 우주항공 및 국방, 바이오기술 및 제약 등 일부 산업에서 사업윤리, 기업 윤리 등의 지표를 통해 다뤄진다. 금속 및 채광 산업에서 다뤄지는 반부패 보고 항목을 예시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SASB 금속 및 채광 산업의 ‘사업 윤리’관련 지표 (부분발췌)〉

지표	지표내용
EM-MM-510a.1 공급망 전반의 부패 및 뇌물수수의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은 부패 및 뇌물수수 위험을 내부와 기업의 가치사슬 내 사업 파트너와 연계하여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관리체계와 실사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2. 기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행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지침 2.2 국제상공회의소(ICC)의 금품 강요 및 뇌물 수수에 관한 행동준칙 2.3 국제투명성기구(TI)의 뇌물방지를 위한 기업활동 준칙(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2.4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10번째 원칙 2.5 세계경제포럼(WEF)의 반부패연대이니셔티브(Partnering Against Corruption Initiative, PACI) 3. 기업은 지급 투명성과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유럽연합 회계지침(European Union Accounting Directive) 제10장 3.2 유럽연합 투명성지침(European Union Transparency Directive) 제6조 3.3 노르웨이 국가별 보고서 관련 규정(Norway Forskrift om land-for-land-rapportering) 3.4 캐나다 채굴분야 투명성 측정에 관한 법(Extractive Sector Transparency Measures Act)

<p>EM-MM-510a.2.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하위 20개국에 해당하는 국가에서의 생산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하위 20개국에 해당하는 국가에서의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자사의 순생산량(net production)을 공시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하위 20개국의 수치상의 순위는 국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즉, 복수의 국가가 동일한 순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범위에는 20개국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 2. 기업은 국제투명성기구의 최신 버전의 CPI를 사용해야 한다. 3. 생산량은 광물의 판매가능 톤으로 공시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3.5 기업은 광물 또는 사업 단위별 자사 생산량을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광물 또는 사업 단위에는 알루미늄, 구리, 아연, 철광석, 귀금속 또는 다이아몬드가 포함될 수 있다. 4. 기업은 지수 등급은 낮으나 사업 윤리 위험이 낮은 국가의 작업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지수에서 하위 20개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높은 사업 윤리 위험을 나타내는 국가에 위치한 작업장에 대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다.
---	---

출처: SASB, Metals & Mining(2023.12)

참고

- U4, ESG and anti corruption (2024.2.26)
-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 EU 수출기업을 위한 공시기준(CSRD 및 ESRS)가이드북(2024.2)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이사회를 위한 지속가능성(ESG) 감독 가이드(2024)
- 삼일PwC, 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리포트(2025.4)
- SASB 홈페이지 | <https://sasb.ifrs.org/>
- U4, ESG and anti corruption(2024.2.26)
- Coolset, “ESG reporting after Omnibus: Why companies shouldn't stop now”(2025.3.26)
<https://www.coolset.com/academy/esg-reporting-after-omnibus>
- Forbes, “Beyond The Green: The ‘G’ In ESG Is Key To Fighting Corruption”(2024)
<https://www.forbes.com/sites/oludolapomakinde/2024/06/18/beyond-the-green-the-g-in-esg-is-key-to-fighting-corruption/>
- 연합뉴스, “국내 중기 ESG 성적, 2년 만에 2배 ↑ …환경 중심 대폭 개선”(2025.4.9)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8140400003?input=1195m>
- 법률신문, “ESRS 시리즈 1 :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의 이해”(2024.12.6)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3536>
- 세계일보, “수출 중견기업 46% ‘ESG 경영’ 도입…전문 인력 부족 등이 ESG 장애물”(2025.3.21)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21505063?OutUrl=naver>
- Draft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ESRS G1 Business Conduct(2022.11)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

기업용 CP
소개

(이 글을 읽는데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2024)』에 따르면, 오늘날 기업에게 윤리경영이 요구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된다.

첫째, 미국 FCPA, 영국 Bribery Act,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 반부패 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수반되는 윤리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ESG 경영의 확산과 함께 ‘반부패’는 사회(S) 및 지배구조(G) 영역의 핵심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의 장기적 신뢰성과 투자 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청렴경영은 법적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기업의 평판자산 제고, 우수 인재 확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

경영성과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자, 국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무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기업이 윤리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이 있다. CP는 조직 내부의 윤리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업의 조직문화와 의사결정 전반에 청렴의 원칙을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P는 국제 반부패 기준(UNGC, OECD 가이드라인, FCPA 등)과 국내외 ESG 공시기준을 반영해 구성되었으며,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청렴경영 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공통 요소와 실질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P는 5가지 진단영역으로 구성되며, 12개 진단요소, 27개 진단지표에 따른 55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었다.

<국제 가이드라인 핵심 키워드에 따른 윤리경영 CP 진단영역 도출>

핵심키워드	진단영역
고위직의 약속/리더십, CP조직, 정책, 절차, 행동규범(Code of Conduct)	I. CP 체계 구축
부패위험 식별 및 평가 고위험영역 관리, 공급망 관리, 신고 및 처리	II. CP 운영
교육, 소통	III. 소통
모니터링, 평가, 개선, 징계, 인센티브	IV. 모니터링 및 개선
정보 공시, 기록, 유지	V. 공개 및 기록보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2024)

진단 영역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체계 구축**은 CP에 대한 고위경영진 실천의지, 고위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CP 책임자 및 전담조직 구성, 운영지침 수립이 포함된다.
- II.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은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부패위험 식별 및 평가, 부패위험 영역관리 및 완화, 공급망 관리, 부패 신고체계로 구성된다.
- III. **소통**은 기업의 직원이 자사의 반부패 정책과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지, 부패 관련 문제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교육,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다.
- IV. **모니터링 및 개선**은 윤리경영 CP 제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발생한 부패사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인센티브 제도가 포함된다.
- V. **공개 및 기록보관**은 ESG 및 글로벌 규범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기업의 부패방지 노력 정보공시, CP 제도 및 부패 관련 정보의 '기록 관리'로 구성된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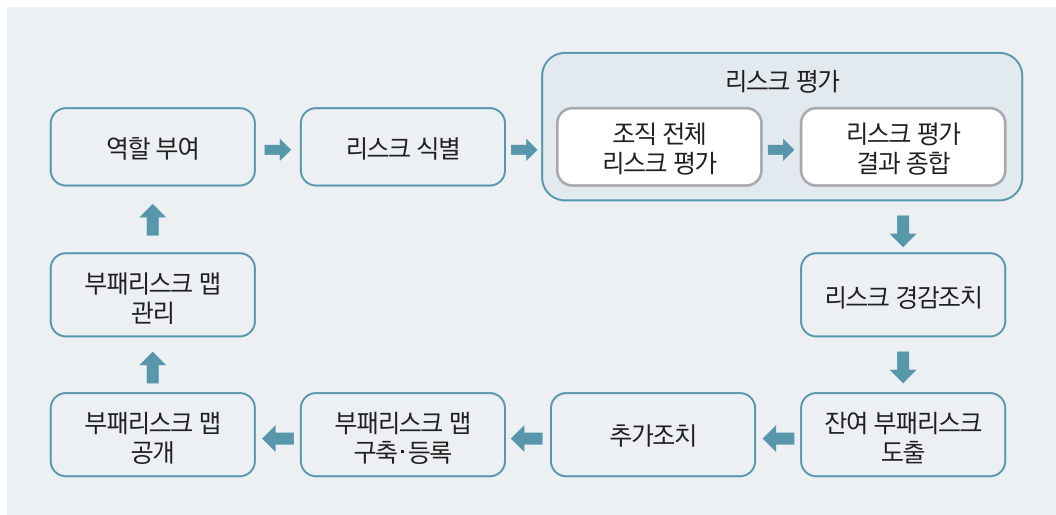
안내서는 CP의 진단영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진단영역별 상세설명과 세부지표, 관련 사례, 준수사항 등을 포함하여 구성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 반부패 규범과 각국의 가이드라인,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지표를 설계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윤리경영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각지대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안내서에서 제시된 자가진단 지표 중 국제 규범과 연계성 및 실무 중요도가 가장 높은 지표가 포함된 부패위험 식별 및 평가대응 영역을 발췌하여 안내서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패위험 식별·평가 및 대응 영역

부패위험 식별은 대내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특정하는 단계로,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위험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기반이 되며, CP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부패위험 식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곳에 시간과 자원 등을 투자하게 되어 목표로 하였던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조직 전체의 부패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부패위험 매핑(Mapping) 및 구축된 부패위험 맵(Map)의 관리가 중요하다. 아래의 그림과 표는 각각 부패위험 매핑 프로세스와 CP 중 부패위험 식별·평가 및 대응 영역의 세부 지표 및 체크리스트 구성 목록이다.

〈부패위험 매핑〉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2024)

〈기업CP 진단지표 및 체크리스트-부패위험 식별·평가 및 대응〉

진단영역	진단요소	진단지표	세부 체크리스트
II.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운영	부패위험 식별·평가 및 대응	식별	11. 주요 부패위험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국가, 사업, 거래,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에서 활용하는가?
			12. 부패위험 식별 과정에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는가?
			13. 식별과정에서 합리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제3자의 검증을 받았는가?
		평가	14. 식별된 부패위험을 기준으로 기업의 위험 취약성을 평가하였는가?
			15. 식별된 부패위험에 대하여 분류, 등록 및 위험수준별 경감조치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였는가?
		위험신호 대응 및 관리	16. 위험신호(Red Flags)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17. 위험신호(Red Flags) 포착 시 대응절차 및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는가?
		특별위험 영역 관리	18. 부패 관련 법령 위반사항(뇌물수수, 청탁 등)을 특별위험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19. 회사의 운영지침, 규정, 체계 등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가?
			20. 부패방지 글로벌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별위험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2024)

안내서는 또한 세부 지표와 체크리스트 준수를 위해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준수할 사항 그리고 참고할 예시 등을 제시한다. 부패위험 식별·평가 및 대응 영역의 세부 체크리스트 중 가장 중요도 높은 지표인 11번 ‘부패위험 식별체계 구축’을 부분을 통해 상세 설명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1. 주요 부패위험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국가, 사업, 거래,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에서 활용하는가?

효과적인 부패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식별 및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은 문서화되어 조직 내 표준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관련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식별·평가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부패위험 평가는 일회성이 아니라, 사업 확장, 공급망 변화, 조직 개편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하는 절차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부패위험은 산업 특성, 비즈니스 모델 등 고유 요인에 따른 ‘고유 부패위험’과, 인사·재무 등 조직 운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패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기업은 이들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사내 운영뿐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 외부 활동에도 해당 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부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관련 준수사항

- 가. 부패위험 식별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프로세스 등 문서화된 표준이 있는 경우
- 나. 부패위험 식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명시하는 경우
- 다. 부패위험 식별 평가 과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경우
- 라. 부패위험 식별 평가를 통한 결과를 사업 운영,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에서 활용하는 경우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2024)

안내서는 이 지표 외에도 모든 세부 지표에 대한 설명과 참고자료를 담고 있다.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리스크 수준과 윤리경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실무에 폭넓게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다.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2024)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5010300&bid=99&act=view&list_no=8413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권익위 소식

권익위 정책

국민권익위, “찾아가는 청렴교육”…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리더십 전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4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130개 공공기관의 고위직 등 3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연수원은 2024년부터 원내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공직자들을 위해 서울과 세종에서 권역별 방문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 강원권역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렴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고, K-컬처(태권도)와의 융합을 통해 청렴을 보다 흥미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에 따라, 청렴연수원은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사례 중심의 반부패 법령 교육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를 바탕으로 SI 시대를 주도하는 청렴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충청남도태권도협회 시범공연단이 ‘부패 상황을 태권도로 타파해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는 주제로 청렴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쳐 공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원장은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단순한 법령 교육을 넘어 공직자의 마음에 청렴의 가치를 새기는 실천형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4월 9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86666

권익위 활동

국민권익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찾는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청년·중장년 및 노년층 등 세대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다.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연령별*로 팀(2인 이상 5인 이내) 또는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청소년(18세 이하), 청년(19~34세), 중장년·노년층(35세 이상)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제출한 제안(아이디어) 중 내부·외부 심사 및 국민 선호도 조사 등 4단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건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국민생각함 우수 안건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과 함께 총 84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대상(3건) 각 100만 원, 최우수(3건) 각 70만 원, 우수(3건) 각 50만 원, 장려(6건) 각 30만 원)

그동안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국가건강검진에서의 정신건강 진단 및 관리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무료 지원’과 같은 우수한 제안(아이디어)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하도록 권고하거나 정책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정책 참여 문화가 확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가 도출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아이디어)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4월 14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89486

권익 2025년 논문공모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투명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술지 **권익**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2025년 **권익**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논문 주제

부패방지 분야

-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 부패·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청렴도 평가제도, 청렴윤리경영 등 제반 연구

권익구제 분야

- 민원 등 국민 고충처리 관련 제도 및 해결사례 등 연구
- 행정심판 제도, 행정심판 재결례 분석 등 제반 연구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업무 분야

응모 자격

국민권익 업무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 등 일반 국민 누구나

공모 등 일정

기간 : 2025. 3. 4.(화) ~ 5. 30.(금)
심사 : 2025년 7월 예정
발간 : 2025년 10월 예정

논문 작성

원고 분량 : A4 용지 25매 이하

작성 요령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acrc.go.kr>) 또는
청렴연수원(<https://edu.acrc.go.kr>) 홈페이지 참고

원고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최대 200만원 지급

접수 및 문의

접수 : 전자우편(eduacti@korea.kr)으로 제출·접수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043-901-6136)

※ 유의사항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함.
- 투고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논문 게재 등 취소
- 투고 논문의 표절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논문 유사도 검사서 제출은 필수 사항임.

※ 위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du.acrc.go.kr/0401/board/notice.do?mode=V&pageIndex=1&idx=7468763339977125025&>



국내외동향

국내외 동향

반부패 정책

금융정보분석원(FIU), 자금세탁방지 위해 유관기관과 고위험군 식별 검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확산 등에 따라 신종 자금세탁수법 예방을 위해 올해 자금세탁방지(AML) 취약부문과 고위험 기관을 집중 수사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월 5일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기관별 연간 검사 운영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FIU 제도이행평가 결과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범죄 AML 공동 대응반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사업권을 중심으로 검사를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환전 영업자를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를 한다. 고위험군은 우범지역에 소재해 있거나 외환범죄 연루 업체 등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이 높은 대면 환전소 등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전체 단위금고 등에 대해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 고객 확인의무 이행의 충실성 등에 집중해 테마검사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5개 상호금융중앙회 등도 FIU의 'AML 시스템 적정성 공동 검사기준'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기로 했다.

■ IT 조선 2025년 3월 5일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35510>

ESG

방사청, 방산기업 ESG 평가해 '인센티브' 준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에 윤리경영운영 및 ESG 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방산기업 윤리경영체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산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위해 한국화된 평가 기준과 인센티브 등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산기업도 ESG 등 반부패 규제 흐름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평가(윤리경영, 부패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세계적 ESG 확대 추진에 따라 가겠다는 취지다. 관계자는 이어 "유럽 주요국에서 공급망 ESG 실사법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EU의회의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지침 발표와 함께 법제화 추진 등 전세계적으로 ESG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방산기업이 자체적으로 ESG 대응을 위한 준비를 추진 중이지만, 방위사업의 특수성과 인력·비용 문제 등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ESG 경영에 대한 업체의 동기부여 정책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SG체계 내용에는 투명성과 반부패평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입 후 방산기업이 해당 기준을 맞출 경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센티브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입찰 참여 시 정부에서 이윤을 붙이지 않고 원가를 보장하거나 제재 감경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약 90여 개 정도로,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수천 개에 달한다. 정부는 해당 업체들의 ESG 평가를 위한 구분 방식 등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이르면 2027년 도입이 확정될 예정이다.

■ SBS Biz 2025년 3월 17일

<https://biz.sbs.co.kr/article/20000223030?division=NAVER>

국내 중기 ESG 성적, 2년 만에 2배 상승...환경 중심 대폭 개선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2천131개사의 2022~2024년 ESG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ESG 경영 수준이 2년 사이 2배 이상 향상됐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 2.0~2.2점에서 2023년 3.2~3.4점, 2024년 4.6~4.8점으로 '취약'에서 '양호' 등급으로 올라섰다. ESG 평가 등급은 10점 만점으로 '취약'(0~2.99점), '양호'(3~6.99점), '우수'(7~10점) 등 3구간으로 구분한다. '취약'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2년 45.7%에서 2024년 32.4%로 13.3%포인트 줄었고, '양호' 등급 기업은 50.8%에서 58.1%로 7.3%포인트 늘었다. 7점 이상을 받은 '우수' 등급 기업도 3.5%에서 9.5%로 6.0%포인트 증가했다.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영역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환경에서는 '대기오염물질' 항목 점수가 1.13점에서 6.48점으로 크게 향상됐다. 이는 지자체별로 기업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감축시설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활동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사회 부문에서는 '근로환경' 상승 폭이 1.97점에서 5.70점으로 상승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등장으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등 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업 대응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보보호' 항목은 4.50점에서 3.12점으로 하락했다. 최근 몇 년간 해킹 기법이 정교해지고 다크웹 등이 확산하면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기술 유출·침해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정보 공시'와 '감사' 항목이 2년 사이 각각 1.71점 상승했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가 논의됨에 따라 기존 회계감사 위주에서 경영개선 및 위험관리 중심으로 변화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2025년 4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8140400003?input=1195m>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시행 연기

EU 이사회는 4월 14일(현지시간)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시행 연기에 관한 이행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EU 관보에 게재되면 즉각 발효되며, EU 27개국은 연말까지 국내법에 변경된 시행 일정을 반영하게 된다. CSRD는 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非)EU 기업을 포함한 모든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이 환경·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로도 불린다.

CSDDD는 대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두 법안 모두 1~2년씩 시행이 연기돼 2028년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 연기 결정은 집행위가 지난 2월 26일 규제 간소화를 위한 골자로 한 첫 번째 옴니버스 패키지에 포함된 것으로, 약 한 달 반 만에 처리됐다. 이 패키지에는 두 법안의 적용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일단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조만간 법안 수정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 2025년 4월 14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29739>



감사 표현, 청렴 기준 안에서

웹툰

윤리네컷

“생일 축하한다”고, 거래처에서 커피 쿠폰을 보냈네요.

친한사이기도 하고, 5만원 이하니까 받아도 괜찮겠죠?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1항에 보면 5만 원 이하의 기프트콘은 의례적인 선물로 허용될 수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상황이 애매해져요. 우리 회사 윤리 담당자나 지침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윤리경영 담당자

거래처의 친한 분이 5만 원 이내 생일 기프트콘을 보냈는데, 받아도 되는 건가요? 거절해야 하나요?

우리 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원칙적으로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선물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요.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회사의 윤리행동강령을 참고해보세요.

애매한 상황 사례와 권장행동에 대해 정리되어 있어요. 저희도 실무자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도 계속 보완하고 홍보할게요.



행사소식

‘ESG 패러다임 변화와 기업 실천 전략’ 세미나

변화하는 ESG 패러다임 속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차별화된 ESG 보고서 작성 방법을 제시하며, 실무 중심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세미나

주최 한국경영인증원(KMR)

일정 2025년 4월 29(화)

장소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참고 <https://edu.ikmr.co.kr/web/center/noticeView.do?boardIdx=10618&certifiedYn=&pageIndex=1&searchKeyword=&searchCondition=>

The 2025 APEC CEO Summit

글로벌 CEO, 저명한 전문가 및 고위 경제 리더가 모여 비즈니스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지향적인 통찰력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서밋. 기업이 정부, 현실과 이상을 연결(Bridge)하며, 혁신 성장의 주체(Business)로서 APEC 공동체의 더 나은(Beyond) 미래 번영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Bridge, Business, Beyond(b·b·b)'을 주제로 개최된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 혁신, AI, 헬스케어 등 세계 경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혁신적인 산업과 새로운 트렌드를 다룰 예정이다.

주최 대한상공회의소(KCCI)

일정 2025년 10월 28(화)~10월 31(금)

장소 경주

참고 <https://apecceosummitkorea2025.com/>





독자 의견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4월호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 나은 콘텐츠로 개선하려 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남겨주시면 5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① 이번호에서 다른 주제 또는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 ②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또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 ③ 기타 의견(다뤘으면 하는 주제, 기업 사례 등)

2025년 5월 10일(목)까지

- (1) '의견남기기' 페이지(<https://quiz.assist.ac.kr>)에서 응답하시거나
- (2)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orea@assist.ac.kr) 앞으로
의견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기프티콘 추첨에 선정되신 분들은

김○광님, 유○열님 입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① 상담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② 상담관지정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③ 사실관계조사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④ 결과확인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부패·공익신고는 ▶ 청렴포털 www.clean.go.kr

- ① 부패·공익신고 상담 및 안내
- ② 부패·공익 침해 행위 신고
- ③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청
- ④ 신고 및 신청사건 결과조회

